고려대장경硏 24년 결실, 동국대서 여문다

동국대 · 대장경硏 '고려대장경 DB' 기증 · 협약

대장경 전산화의 산실인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의 20여 년 성과물인 '고려대장경 DB'가 불교 · 인문학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동국대(총장 보광)에 기증됐다.

동국대와 고려대장경연구소는 5월 25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고려대장경 전산화본(DB) 기증 및 활용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정승석 불교학술원장,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동국대에 기증된 '고려대장경 DB'는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진행해 온 24년 연구사업의 총체이자 결실이었다.

1993년 3월, 고려대장경의 연구와 전산화를 위해 발족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고려 재조대장경(1996년) △초조대장경(2009년)과 60화엄석경(2004년) △중국돈황 불교문헌(2008년) △고려 교장문헌(2012년 3월~2020년 2월) 등 대장경류와 고문헌 등에 관한 전산화(DB)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려대장경은 불교의 교학과 선학, 계율학, 선어록 등 불교경전을 비롯하여 어제비장전, 변상도 등 회화적 요소와 당대 공인된 문학적인 자료까지 담고 있는 백과사전(叢書)과 같은 동양 최고의 문헌이자 최대량의 지식정보 유물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그동안 이에 대한 디지털 DB를 완성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불교와 인문학술 연구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왔다.

목판 · 인경 이미지 10TB 분량

재조 · 초조 · 돈황 문헌 등 DB일체

동국대 기증… 활용도 높일 전망

ABC사업단 '통합대장경' 구축도

20여 년의 연구가 결집된 만큼 기증된 DB의 양도 매우 방대하다. 데이터 용량만 10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재조(팔만)대장경DB에는 해인사 장경각의 한역 목판본 이미지 16만2516판이, 고려 초조대장경DB에는 일본 남선사 등서 수집한 목판 인경본 이미지 5만1000장이 담겼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과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이 5월 25일 열린 '고려대장경 전산화본(DB) 기증 및 활용 협약식'에서 협약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국 돈황 불교문헌DB은 대영박물관의 마이크로필름본 341롤, 60화엄석경 DB은 구례 화엄사의 석경 파편 1만3000점의 이미지를 각각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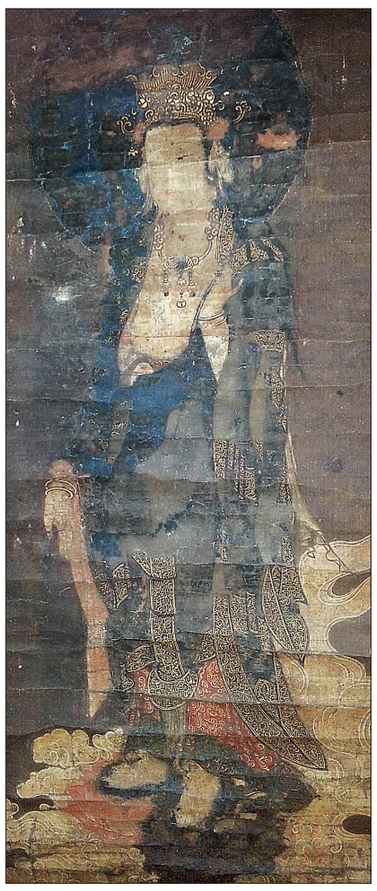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은 "이렇게 구축한 고려대장경의 전산화본을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인류의 소중한 지식정보의 자산으로 연구 활용될 수 있도록 동국대에서 유통 ·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증하게 됐다"며 "고려대장경 DB자료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불교와 인문학술 연구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기증받은 '고려대장경 DB'를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의 '통합대장경' 구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려대장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한국불교기록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불교학술원이 추진하는 '통합대장경'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구축한 고려대장경 데이터베이스의 고려대장경 원문 이미지, 한자텍스트와 동국대 동국역경원이 번역한 한글대장경을 내용적으로 통합하여 한 화면에서 연동하여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디지털 대장경이다. 향후에는 몽골 · 티베트 불교 대장경도 함께 열람이 가능토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정승석 불교학술원장은 "이번 기증으로 불교기록문화유산 DB의 보존과 연구, 활용을 위한 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됐다"면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 연구와 불교학술 진흥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4세기 고려불화 '관음보살내영도.' 관음보살이 독존으로 있는 내영도 도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제공=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

고려불화 '관음보살내영도' 첫 발견

문명대 소장, 日환수 불화 분석 결과 발표

14세기에 제작된 고려불화 '관음보살내영도'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그간 내영도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한 도상으로만 알려졌으나, 이번 발견으로 관음보살이 내영도의 도상에 배치됐음이 확인됐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강좌미술사〉 6월호에 수록한 '고려 관음보살내영도의 새로운 출현과 그 의의' 논문을 통해 고려불화 '관음보살내영도'의 발견 경위와 분석 결과 · 의미 등을 조명했다.

문 소장은 서울의 한 박물관장이 지난 3월말 분석 의뢰한 불화를 감정한 결과 해당 불화가 고려불화 '관음보살내영도'임을 확인했다. 소유자는 해당 불화를 일본의 옥션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음보살내영도'는 83×34.5cm의 화면에 높이 51cm의 관음보살상이 나는 구름(飛雲)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린 내영도형식을 갖추고 있다.

관음보살상의 보관과 목걸이, 팔찌 등은 금선묘(金線描)로 매우 화려하게 표현됐다. 흔히 보관에 안치된 화불(化佛)이 왼손의 연꽃가지 위에 안치된 것도 이전 불화에는 없는 도상적 특징이다.

관음보살의 법의(法衣)에 나타난 문양도 처음 발견된 것으로 매우 독특하다. 해당 문양을 '보상당초모란잎무늬'라고 명명한 문 소장은 "꽃도 꽃이지만

기법 · 양식 볼 때 14세기 作

觀音 단독 내영 도상은 처음

금선묘 · 모란잎 무늬도 희귀

"아미타신앙 절정을 보여줘"

잎들의 특징이 산(山)형을 이루고, 잎줄기가 좌우대칭적으로 뻗치고 있는 형태여서 특이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음보살내영도' 발견은 아미타내영도의 좌협시보살이었던 관음보살이 독존으로 분리돼 내영도로 승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문 소장은 "아미타삼존도 중 삼존상을 각각 분리해 조성한 3폭 가운데 한 폭인지 원래 관음보살내영도를 독립적으로 조성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관음보살내영도라는 새로운 형식이 출현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관음보살내영도'는 선명한 금선묘 채색불화 가운데 전신이 선명한 금선묘로 묘사되는 대표적 사경변성도적 금선불화이며, 법의의 보상연화당초모란잎무늬는 처음 나타난 것으로 고려불화 문양의 새로운 예"라며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유일한 새로운 형식의 불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음보살이 내영도 상에 단독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미타신앙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봤다.

문 소장은 "아미타신앙은 신라시대부터 유가법상종 · 화엄 · 법화 · 선종 등 모든 종파사상에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면서 "관음보살은 아미타불과 일체가 돼 아미타신앙을 더욱 승화시킨다. 아미타 · 관음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이 이번의 '관음보살내영도'"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본엄 스님이 영어연구발표회서 '현대 서구사회의 세속불교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영어로 '한국불교 세계화'를 말하다

동국대 국제불교학과, 제1회 환지본처 컨퍼런스

오는 8월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가 졸업을 앞둔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영어 소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원장 김성철)은 제1회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영어연구발표회 '제1회 환지본처 컨퍼런스'를 5월 22일 교내 100주년 기념관 402호에서 개최했다.

컨퍼런스에는 △재가자 불교단체의 모범사례 비교 연구-대만 자제공덕회, 미국 IMS, 한국 정토회 중심으로(선중스님) △현대 서구사회의 세속불교에 대한 연구(본엄 스님)가 발표됐다.

선중 스님은 대만 자제공덕회 · 미국 IMS · 한국 정토회의 성공요인으로 △부처님 가르침 현실화 △투명한 재정운영 △대승보살사상의 계승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재가 단체의 비교연구를 통해 포교 대안으로 전문화, 투명화, 분업화는 선별 과제"라고 제언했다.

본엄 스님은 "현대 서양불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해 한국불교 세계화에 도움을 주고자한다"며 "서양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합리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세속불교 버전이 21세기에 새롭게 대두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속불교의 출현과 발전은 동양의 종교인 불교가 서양이라는 이질적인 토양에서 자리 잡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국제포교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수용과 서구적인 방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려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날 때마다 참석한 교수 및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재학생,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100여 명은 격려와 함께 질문을 이어갔다.

경주=하성미 기자

"국립공원 별도 관리원칙 세워야"

유호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조계종 환경위 토론회서



자연공원제도 50주년을 맞아 자연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유산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는 2017 토론회 '자연공원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5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개최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제도는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제1호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총 22개 국립공원, 29개 도립공원, 27개 군립공원이 지정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호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사진〉은 '자연공원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 자연공원 정책의 지난 50년간 노력과 성과를 되짚고 4가지 분야에서 미래 과제를 제시했다.

유 과장은 자연자원 관련 기초자료 파악을 통해 적극적 보전활동이 용이해진 점, 청소 · 시설물 관리로 생태휴양 등 국민 생태복지가 강화된 점, 규제중심 소극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파트너십이 강화된 점 등을 국립공원 관리 주요 성과로 들었다.

하지만 현행제도상 한계도 지적했다. 먼저 '국립공원 정체성'과 관련해 유 과장은 "규모 · 기능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국립 · 도립 · 군립공원을 일괄적으로 묶어 자연공원으로 표기하면서 국립공원이 갖는 특별한 위상과 가치, 공원관리 수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국립공원의 확고한 이념과 관리 원칙을 세우고 도립 · 군립공원과는 다른 보호강도, 이용수준, 서비스 종류 등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大韓佛教 淨土禪宗



관정 큰스님은 중국 근대 3대 고승 가운데 한 분인 허운(虛雲) 화상으로부터 조동종 48대 전법제자로 부촉 받았습니다. 정토선은 중국의 관정(寬淨) 큰스님이 문화대혁명 기간 6년 반 동안 관세음보살의 안내로 극락에 가서 배워온 수행법입니다. 2002년 한국 순회법회 때 현재 정토선종 총무원이 있는 고성의 서방사 자리를 잡아주셨고, 그 때 명예주지를 수락하셨습니다. 아울러 주지 스님을 49대 전법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촉하였습니다.

정토선종(淨土禪宗)은 정토선 수행법을 실천하는 종단입니다.

정토선은 정토(염불)와 선을 함께 닦는 수행법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증과가 수승한 수행법입니다.

정토선을 다른 수행법에 비해 두 가지 수승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염불에서 자성염불 단계, 자성염불에서 일념(一念) 단계, 일념에서 무념(無念) 단계라는 3단계의 로드맵이 뚜렷합니다. 둘째, 다른 수행법은 법력이 높은 스승이 있어 증득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주지 않으면 위험한데 반해, 정토선은 3단계가 모두 한마디 염불소리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쉽고 안전합니다.

정토선은 오로지 '나모아미따불(南無阿彌陀佛)을 염불하되 두 편으로 나누어, 먼저 A편이 2번 소리 내서 염불하면 B편이 주의 깊게 듣고, 이어서 B편이 2번 염불할 때 A편이 주의 깊게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염불을 계속하면, 귀속이나 몸속에서 염불소리가 들리는데 '자성염불(自性念佛)'이라 합니다. 몸속에서 염불소리가 들리면 더 이상 소리 내서 염불하지 않고 몸속에서 나는 염불 소리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 가지 생각이 사라지고 한 생각만 남는 일념(一念) 상태에 들어갑니다. 집중된 상태에서 자성염불을 계속 들으면 어느 단계에서 염불소리조차 사라지고 무념(無念)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본산 총무원 西方寺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봉 1길 432-39 / 전화 010-8633-3719



서방사에서는 오는 6월 4일 내 에 서 고 자 합니다. 기 는 은은하지만 는 정 인 보리수 모 분들이 성 하 고 자 의 이 로 에 이 동 하 시 어 고 행 한 나 의 원동력이 되 시 기원합니다.

1 11

장 소 서 경

1부 정 스 1 1 분

부 수 제 11

사 음 회(자 대 회) 사회 한 / 높은음자리

수 의 다 에 누워, 이

보리수 따기 험, 중 무

주 대한불교 정토선종

원 대 한 불 고 성 사 합 회. 고 성 보 리 수 원



남 고 성 상리면 고 1 43239 / 전화 01086333719